

융합적 장애인식 교육 설계를 위한 초·중·고등학생의 장애 인식에 관한 연구

김성진
광주여자대학교 마음나눔교육부

The Study of Disability Awareness among elementary and high school students for convergence education design

Sung-Jin Kim

Dept. of Liberal Arts, Kwangju Women's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융합적 장애인식 교육 설계를 도출한 연구이다. 연구를 위해 J시 소재 초·중·고등학생 각 100명씩 편의표본을 추출하였다. 장애인식 교육은 장애체험, 이론교육 형태가 년 1회 빈도로 진행되고 있었다. 장애인식 집단 차이분석에서는 여학생, 학교 유형이 낮은 단계, 통합교육 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장애인식 교육 참여 집단은 장애편견, 관심과 배려, 장애친구 수용에서 미참여 집단보다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식 교육과 장애인식 간의 관계에서는 장애편견, 장애친구 수용에 영향을 미쳤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생애주기를 반영한 장애인식 교육의 연속성 확보와 융합적 교육 방법 적용, 교육 효과성 검증 매뉴얼 개발 필요성 등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융합, 장애인식, 특수교육, 장애, 사회통합

Abstract This paper is the study on deducing the education design for convergence of disability awareness of targeting elementary, middle, high school students located in J city.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analysis of group difference in disability awareness,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female students, schools, and sub-typed phase, and experience in integrated education. It was found that the participating group in 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 showed a higher average than non-participating groups in prejudice against disability, interest and consideration, and acceptance of physically challenged friend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isability perception education and disability awareness, the education was found to have influence on prejudice against disability and acceptance of physically challenged friends. This paper suggested 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 reflecting a life cycle, application of the integrated educational method for verifying educational effectiveness, etc.

Key Words : Convergence, Disability Awareness, Special Education, Disability, Social integration

* 본 논문은 2015년 광주여자대학교 교내 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KWU 15-114)

Received 25 September 2015, Revised 27 October 2015

Accepted 20 November 2015

Corresponding Author: Sung-Jin Kim

(Dept. of Liberal Arts, Kwangju Women's University)

Email: karma@kw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 현상인 인구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구 급감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반면 고령인구와 장애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령화와 장애 문제는 이제 단순 사회적 이슈가 아닌 현실이자 당면과제이다. 무엇보다 사회적 배제보다는 통합을 통해 그들도 사회 구성원으로 자신의 역할을 발휘하고,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는 접근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에 놓여있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적, 제도적 환경은 국제적 수준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UN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서명을 하였으며,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노동통합을 위해서 이미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외적 환경변화와 달리 여전히 우리사회 구성원의 장애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아 결과적으로 장애차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인 2001년부터 2008년 4월 10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장애차별사건 접수는 653건이었으나, 2008년 4월 11일부터 2014년 12월까지 7,683건으로 기하급수적 증가를 보였다. 특히 교육에서의 차별은 5.6%를 차지하고 있다[1]. 물론 법 제정에 따른 장애차별에 대한 인식 변화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우리사회의 장애편견과 그에 따른 차별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교육현장에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2015년 4월 기준 88,067명으로 2014년보다 789명이 증가하였다. 통합교육의 정책과 학부모의 선호에 따라 장애학생의 일반학교 통합교육은 61,973명(70.4%)로 특수학교 재학생 25,531명(29.0%)의 두배를 넘어서고 있다[2].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 통합은 비장애학생의 올바른 장애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장애학생의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단순히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의 통합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생 시절에 형성된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미래 우리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비장애학생의 장애인식은 향후 사회구성원과의 긍정적 상호작용과 사회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장애학생 측

면에서는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회 확대와 함께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내는데 기여한다[3]. 이에 학령기 단계부터 서로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런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합교육 환경과 함께 긍정적 인식과 수용태도를 높일 수 있는 질 높은 상호작용 촉진을 위한 비장애학생의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4]. 통합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물리적 통합교육만 강조된다면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과의 상호작용이 부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결국 분리 배치보다 더 큰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5,6].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정부는 2003년부터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에서 비장애학생의 장애 인식 개선과 함께 1학기 1회 이상 장애이해 교육 실시를 권장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제3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학기별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을 추진하였으며, 2009년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연 1회 이상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2].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의 인식 교육 실행이 미비하여, 2015년 이상 일의원(새누리당)은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확대·의무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7].

그동안 장애인식 교육에 대한 효과성은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Anderson[8]은 초등학생을 위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장애학생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Salend[9]는 한발 나아가 교과서에 장애 관련 정보를 제시하는 것도 효과적 방법이라고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일련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의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식 교육의 효과성 검증과 함께 융합적 교육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초·중·고등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애인식의 차이는 무엇인가?

장애인식 교육 참여 집단의 장애인식은 차이가 있는가?
 장애인식 교육과 학생의 장애인식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2. 문헌고찰

2.1 비장애 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

통합교육은 장애학생의 교육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장애 학생에게 장애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수용을 갖게 하며, 장애학생과의 사회적 관계형성을 이루어 사회적 통합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10,11,12].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교육진흥법」이 1994년 개정·공포되면서 비로소 통합교육이 실현되었다. 특수교육진흥법에 제2조 6항에 따르면 “통합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적응능력의 발달을 위하여 일반학교(특수교육기관이 아닌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특수교육기관의 재학생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시켜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통합교육 환경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비장애 학생이 장애학생을 차별하거나 배척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장애학생의 반사회적 행동이나 일반적이지 못한 행동 특성 때문인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13]. 특히 선행연구에서는 공격성, 과잉행동, 때리기, 깨물기, 소심함, 우울, 사회적 위축, 분열행동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14,15].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연구에서는 통합교육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또래 수용태도가 높아지고 있음도 보고되고 있다[13,16]. 문제는 물리적 통합보다는 비장애 학생과 장애학생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전에 형성된 장애에 대한 부정적 태도(첫인상, 명칭 등)를 다루지 못하면 결국 부정적 태도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17].

장애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인식이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장애에 대한 이해는 지식과 접촉 경험이 많을수록 보다 호의적 태도를 가진다[18]. 하지만 성별, 연령, 종교 유무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속성은 연구마다 차이가 있어 일관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19].

접촉은 간접적이거나 비구조화 되었을 때보다 직접적이고 구조화되었을 때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20]. 자원봉사의 경험도 장애 인식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장애인과 단순한 접촉강화보다 자원봉사 활동과

같은 자발적 활동과 능동적 접촉은 장애인식에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비교적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다[21,22,23]. 특히 자발적으로 접촉하는 경우가 가장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장애인식 개선 교육

장애학생이 또래 학생으로 소속감을 느낄 수 있고, 일반학급 수업 참여가 의미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장애학생의 인식과 태도가 중요하다[24].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장애에 대한 부정확하고, 불충분한 정보를 개선하여 부정적 태도 형성을 막을 수 있고, 나아가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편견이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24]. Fortini[25]는 비장애학생에게 강의와 학습, 토론을 교육을 실시한 결과 장애에 대한 수용과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일반적인 교육은 교재를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애니메이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등에 위탁형태로 진행되는 경우 기관마다 별도의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제작·활용하고 있다. 교육 자료는 장애인구 현황과 발생 원인, 차별 현황, 장애인 에티켓 등을 담고 있다. 문제는 애니메이션의 경우 반복 시청시 흥미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나, 개발 비용에 따른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수업 실시자의 문제도 있다. 특수교사가 배치된 학교의 경우에는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학교는 이해가 부족한 일반 교사가 진행하고 있어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26]. 장애인복지관 전문가 진행 교육은 학생에 대한 이해부족과 교수법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일반적 교육과 함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가 모의 장애체험 활동이 있다. 모의 체험은 장애인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차원을 넘어 장애인의 적응 과정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9]. 그러나 모의 장애체험의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27]. 단순한 모의 장애체험은 장애에 대한 근본적 이해보다는 단순 흥미와 신기한 활동을 인식될 수 있다[26]. 활동시 장애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 무기력감 등 부정적 감정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공적 대처방안을 함께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28]. 체험 활동도 지체·청각·시각 장애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통합교육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측면에는 한계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장애인이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장애인 당사자주의가 대두되면서 비장애인의 교육보다는 장애인이 자신의 경험과 느낀 점을 이야기 나누고 토론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29].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이런 교육 방법이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교육사업을 꼽을 수 있다. 해당 복지관은 그동안 장애인전문가가 교육을 하는 획일적이고 원론적인 내용과 주입식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10년부터 장애당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 양성과정을 실시하고, 10명의 강사를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가 일상생활에서 직접 겪은 경험담과 장애에 대한 스토리텔링, 토론을 병행하여 차별화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30].

이밖에도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간의 협력학습을 통한 교육 방법[31]과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방법이 있다. 특히 최영화와 엄혜선[32]은 매스미디어 중 TV 시청과 장애 수용 태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TV시청지도가 장애 수용태도에 긍정적 변화를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조사는 J시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각 110명씩 총 3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장애인식 교육에 따른 효과성의 차이 검정을 위해 장애인식 교육 참여 경험에 따라 50%씩 할당하는 편의표집을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5년 4월 한달 동안 진행하였으며, 대상 학교는 초·중·고등학교 각각 2·2·3개교 총 7개교이다. 소정의 교육을 받은 조사요원이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설문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교사의 협조하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결과 최종적으로 300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3.2 설문지 구성 및 척도

3.2.1 응답자의 특성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학교, 장애인식교육 참여 유무, 통합교육 경험 유무로 구성하였다.

장애인식교육 참여 대상에게는 교육의 형태(이론교육, 장애인과 접촉, 모의 장애체험)와 교육 주기(주1회, 월1회, 분기별 1회, 반기별 1회, 년 1회), 향후 희망하는 교육 방법(이론교육, 장애인과 접촉, 모의 장애체험, 기타)를 조사하였다.

3.2.2 장애인식 척도

학생의 장애인식 측정을 위해 이현상[33], 임양호[34], 최숙자[35]가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장애인식 척도는 3개 영역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 7문항,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5문항, ‘장애인의 친구관계’ 5문항 총 1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장애인식 척도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구성개념 타당성 중 판별타당성의 확보를 위해 활용되는 주성분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하였다. 요인회전 요인들 간의 상호독립성을 유지해서는 직각회전(varimax rotation)방식을 적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제거항목은 없었으며, 요인 분석 결과 KMO(Kaiser-Meyer-Olkin)의 MSA(Measure of Sampling Adequacy)는 $0.707 > \alpha = .000$ 이므로 요인분석이 적합하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귀무가설(H_0): 모상관행렬은 단위행렬이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text{Sig.}(P) = 0.000 < \alpha = 0.05$ 에서 단위행렬이 아니라는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단위상관 행렬식에서 제공하는 카이제곱은 320.160이며, 총 누적 설명력은 67.123%이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장애 편견 $\alpha = .827$, 관심과 배려 $\alpha = .882$, 친구관계 $\alpha = .813$ 으로 모두 높은 신뢰도를 보여 척도 사용에 문제가 없었다.

분석은 SPSS 18.0을 사용하였으며, 기술통계, T-test, ANOVA, 회귀분석을 하였다.

4. 조사결과

4.1 조사응답자의 특성

본 연구 대상은 총 300명으로 초·중·고등학교 각 100명씩 총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 162명(54.0%),

여학생 138명(46.0%)로 남학생이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장애인식교육 경험은 각각 150명(50%)씩 균등하게 조사하였으며, 통합교육 경험은 ‘있다’ 175명(58.3%), ‘없다’ 125명(41.7%)로 통합교육 경험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합교육이 보편적으로 확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를 가진 가족 또는 친척과 관련해서는 ‘있다’ 59명(19.7%), ‘없다’ 241명(80.3%)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장애관련 기관에서의 자원봉사 경험으로는 ‘있다’ 78명(26.0%), ‘없다’ 222명(74.0%)로 나타났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 Factors | | N | % |
|---------------------------------------|-------------------|-----|------|
| Gender | male | 162 | 54.0 |
| | female | 138 | 46.0 |
| Type of school | Elementary school | 100 | 33.3 |
| | Middle school | 100 | 33.3 |
| | High school | 100 | 33.3 |
| Disability regard education experiene | y | 150 | 50.0 |
| | n | 150 | 50.0 |
| Integrated education | y | 175 | 58.3 |
| | n | 125 | 41.7 |
| Disability Family | y | 59 | 19.7 |
| | n | 241 | 80.3 |
| Volunteer | y | 78 | 26.0 |
| | n | 222 | 74.0 |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150명을 대상으로 교육 내용을 조사할 결과는 <Table 2>과 같다. 교육방식으로는 이론교육 57명(38%), 장애인과 접촉 17.3%, 모의 장애체험 67명(44.7%)으로 장애체험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빈도는 년 1회 111명(74.0%), 반기별 1회 26명(17.3%), 분기별 1회 8명(5.3%), 월 1회 3명(2.0%), 주1회 2명(1.3%) 순으로 나타나 년 1회 정도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2> 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

| Factors | | N | % |
|--------------------------------|--------------------------------|-----|------|
| Method of education | Educational theory | 57 | 38.0 |
| | Disabled meeting | 26 | 17.3 |
| | Disabled Experimental Activity | 67 | 44.7 |
| Education frequency | Once a week | 2 | 1.3 |
| | Once a month | 3 | 2.0 |
| | 1st quarter | 8 | 5.3 |
| | 1st half stars | 26 | 17.3 |
| | Once a year | 111 | 74.0 |
| Method of education preference | Educational theory | 40 | 26.7 |
| | Disabled meeting | 29 | 19.3 |
| | Disabled Experimental Activity | 81 | 54.0 |

4.2 장애인식에 대한 집단의 차이

4.2.1 성별에 따른 장애인식 차이

성별 장애편견, 관심과 배려, 장애친구 수용에 대한 차이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이 모든 영역에서 여학생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장애편견에서는 여학생 평균 3.398이 남학생의 평균 3.056보다 높았으며, 관심과 배려는 여학생 4.074, 남학생 3.865으로 나타났다. 장애친구 수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와 관련된 요인에서는 여학생 평균 3.306, 남학생 2.944로 분석되었으며, 모든 영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장애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Table 3> Failure to recognize gender differences

| Factors | | N | M | SD | t |
|--------------------------------|---|-----|-------|------|-----------|
| Prejudice against disability | m | 162 | 3.056 | .752 | -4.203*** |
| | f | 138 | 3.398 | .658 | |
| Interest and consideration | m | 162 | 3.865 | .748 | -2.750** |
| | f | 138 | 4.074 | .524 | |
| Acceptance of disabled friends | m | 162 | 2.944 | .816 | -4.064*** |
| | f | 138 | 3.306 | .710 | |

*p<.05 **p<.01 ***p<.001

4.2.2 학교유형에 따른 장애인식 차이

<Table 4> Disability Awareness difference in the type of school

| Factors | | N | M | SD | f | Duncan |
|--------------------------------|---|-----|-------|------|----------|--------|
| Prejudice against disability | 초 | 100 | 3.286 | .749 | 1.119 | a>c>b |
| | 중 | 100 | 3.130 | .758 | | |
| | 고 | 100 | 3.226 | .678 | | |
| Interest and consideration | 초 | 300 | 3.213 | .729 | .753 | a>c>b |
| | 중 | 100 | 4.004 | .652 | | |
| | 고 | 100 | 3.896 | .715 | | |
| Acceptance of disabled friends | 초 | 100 | 3.984 | .615 | 10.892** | a,c>b |
| | 중 | 300 | 3.961 | .662 | | |
| | 고 | 100 | 3.324 | .782 | | |

*p<.05 **p<.01 ***p<.001

현재 재학학교 있는 학교 수준에 따른 장애인식 차이 분석과 사후검정은 <Table 4>와 같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영역은 장애친구 수용으로 나타났다. 장애편견 영역에서는 초등학교 평균 3.286, 고등학교

3.226, 중학생 3.130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관심과 배려는 중학생 4.004, 고등학생 3.896, 초등학생 3.213으로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장애친구 수용과 관련해서는 초등학생 3.984, 중학생 3.961, 고등학생 3.324로 평균의 차이가 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4.2.3 통합교육 경험과 장애인식 차이

장애학생과의 통합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장애인식 차이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이 장애편견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편견에서는 통합교육 경험자의 평균이 3.278로 경험이 없는 학생의 평균 3.122보다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관심과 배려에서는 통합교육 경험자 평균이 3.969로 미 경험자 평균 3.950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장애친구 수용 영역에서는 통합교육 미 경험자의 평균이 3.131로 경험자 3.096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런 차이 결과는 통합교육이 장애인식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있지만 관심과 배려에 대한 인식과 장애학생을 친구로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차원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5> A Comparison of average according to Inclusion experience

| Factors | | N | M | SD | t |
|--------------------------------|-----|-----|-------|------|--------|
| Prejudice against disability | yes | 175 | 3.278 | .756 | 1.863* |
| | no | 125 | 3.122 | .683 | |
| Interest and consideration | yes | 175 | 3.969 | .663 | .242 |
| | no | 125 | 3.950 | .662 | |
| Acceptance of disabled friends | yes | 175 | 3.096 | .821 | -.386 |
| | no | 125 | 3.131 | .743 | |

*p<.05 **p<.01 ***p<.001

4.2.4 장애인식 교육 참여에 따른 집단 간 차이

장애인식 교육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른 각각의 장애인식 차이 분석은 <Table 6>과 같이 모든 영역에서 교육 받은 집단의 평균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장애편견과 관련해서는 교육 참여자의 평균이 3.608로 미 참여자 2.818보다 높았으며, 관심과 배려는 참여자 4.217, 미 참여자 3.705로 나타났다. 장애친구 수용은 참여자 3.513, 미 참여자 2.709로 참여자의 인식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수준과 교육의 형태를 벗어나 장애인식 교육이 학생의 장애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6> A Comparison of average according 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 and disability awareness

| Factors | | N | M | SD | t |
|--------------------------------|-----|-----|-------|------|-----------|
| Prejudice against disability | yes | 150 | 3.608 | .649 | 11.165*** |
| | no | 150 | 2.818 | .575 | |
| Interest and consideration | yes | 150 | 4.217 | .516 | 7.257** |
| | no | 150 | 3.705 | .693 | |
| Acceptance of disabled friends | yes | 150 | 3.513 | .706 | 10.266** |
| | no | 150 | 2.709 | .650 | |

*p<.05 **p<.01 ***p<.001

4.2.5 장애인식 교육의 장애인식과의 영향관계

장애인식 교육 참여와 장애인식과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분석 결과 변수간의 다중공선성(0.9 이상)은 없었으며, 장애인식 교육 참여 여부는 더미변수 처리(미참여=0, 참여=1)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식교육이 장애인식 중 장애편견과 장애친구 수용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 수준에서 49.975의 수치를 보였으며, 회귀식에 대한 R²=.336으로 33.6%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Table 7> Effect relationship between 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 and disability awareness

| Factors | | S.E | β | t | Tolerance |
|--------------------------------|--------------------------------|------|------|-----------|-----------|
| Constant | | .147 | - | -6.189*** | |
| 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 | Prejudice against disability | .046 | .349 | 5.254*** | .509 |
| | Interest and consideration | .046 | .049 | .813 | .614 |
| | Acceptance of disabled friends | .043 | .250 | 3.712*** | .494 |

R=.580, R²=.336, Adjusted R²=.329

F=49.975, p=.000

*p<.05 **p<.01 ***p<.001

5. 결론 및 제언

융합적 장애인식 교육 설계를 위해 초·중·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교육 참여에 따른 장애인식 태도 차이에 관한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식 교육과 관련된 현황을 파악 할 수 있었다. 응답자가 받은 장애인식 교육 형태로는 모의 장애체험 44.7%, 이론교육 38.0% 순으로 나타나 단편적이고, 흥미 위주의 교육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 주기는 년 1회 74.0%로 가장 높아 연속성 있는 교육보다는 일회적 교육 형태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향후 교육 형태의 욕구와 관련해서는 이론교육, 장애인과 접촉, 모의 장애체험 등 비교적 다양성 있는 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장애인식에 대한 집단의 차이 분석 결과 성별과 학교 유형, 통합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장애편견, 관심과 배려, 장애친구 수용 모두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강수균, 조홍중[1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학교 유형에서는 장애친구 수용 요인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평균값은 초·중·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일수록 장애친구에 대한 수용이 더 높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장애인식 교육이 조기부터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통합교육 참여 경험에 따른 차이 분석에서는 장애편견 해소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한편 장애를 가진 가족 및 친척, 장애관련 분야 자원봉사는 장애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였다. 이런 결과는 사회 변화로 핵가족 형태의 생활로 인한 가족 구성원의 결속력 문제와 체계적이지 못하고, 자발성이 부족한 의무화된 학생 자원봉사 활동 제도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장애인식 교육의 장애인식과의 차이 분석, 영향 관계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식 교육 참여 경험 집단은 미참여 집단에 비해 장애편견, 관심과 배려, 장애친구 수용 모두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장애인식 교육의 장애인식 영향 분석에서는 장애편견, 장애친구 수용에서만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융합적 장애인식 교육 설계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주기를 반영하여 장애인식 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인식의 틀은 생애 전반에 걸쳐 형성되기 때문에 일시적 교육으로 성과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인식의 틀이 고착되기 이전에 조기교육 단계부터 연속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성장과 교육의 단계에 따른 장애인식 교육의 연속성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연속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년간 1회 정도의 일회성 형태의 교육보다는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반영하여, 학습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체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융합방법을 통한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가 필요하다. 교육 방법과 관련해서는 생애주기에 따라 관심·흥미·환경을 고려하여 설계하되, 융합적 형태의 장애인식 교육을 만들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제시했듯이 교육의 형태에 따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형태의 장애인식 교육은 효과성을 얻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론교육, 장애인과 접촉, 장애체험을 복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무엇보다 장애인 당사자를 직접 교수자로 참여시키고, 일상에서의 경험과 고민, 삶의 변화를 스토리텔링 형태로 구성하여 장애가 동떨어지고 낯선 것이 아닌 차이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을 구성하는 차별화가 필요하다.

셋째, 장애인식 교육 효과성에 검증에 대한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장애인식 교육이 모든 교육현장에서 산발적이고,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교육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학생 수준에 부합하는 교수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표준화된 검증 매뉴얼과 빅데이터 관리 체계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표준화된 매뉴얼은 초·중·고등학교의 형태, 거주지역, 성별 등 인구사회학적 변인들과의 관계 규명과 함께 맞춤형 교육을 개발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다.

ACKNOWLEDGMENTS

This paper was supported(in part) by Research Funds of Kwangju Women's University in 2015(KWU 15-114)

REFERENCES

- [1]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elebration debate forum for 2015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2015.
- [2] Ministry of Education, an annual report Special Education, 2015.
- [3] H. S. Seo, H. S. Kwon, The effects of disability awareness program and inclusion experienc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16(1), pp.63-82, 2009.
- [4] Jonson, D. W., Jonson, R. T., Classroom learning structure and attitudes toward handicapped students in mainstream setting. In R. L. Jones (ED), *Attitudes and attitude change in special education*. pp.118-142, 1984.
- [5] Guralnick, M. J., Gottman, J. M., & Hammond, M. A., Effects of social setting on the friendship formation of young children differing in developmental statu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7, pp.625-651, 1995.
- [6] Stone, N., LaGreca, A., The social status of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A re-examination,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23, pp.32-37, 1990.
- [7] ablenews. 2015. 6. 5.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150605135507965550#z>.
- [8] Anderson E. H., The effective of puppetry and film in modifying student's perception toward persons with disabilities, Doctoral dissertation, The Florida State University, 1992.
- [9] Salend, S. J., *Creating Inclusive Classrooms: Effective and Reflective Practices*, New Jersey Columbus, Ohio: Merrill Prentice Hall, 2001.
- [10] S. H. Lee, Y. H. Park, *Children's special education*. Hackjisa, 2011.
- [11] Heiman, T., Margalit, M., Loneliness, depression, and social skills among students with mild mental retardation in different educational setting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32(3), pp.154-163, 1998.
- [12] Strain, N., Hoyson, M., The need for longitudinal, intensive social skill intervention: LEAP follow-up outcomes for children with autism,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20(2), pp.116-122, 2000.
- [13] Y. T. Jo, Peer denied mental behavior of retarded childre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17(1), pp.103-120. 1996.
- [14] Bak, Sipertein., Protective effects of Mentally retarded on children's attitudes toward mentally retarded peer,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91, 1987.
- [15] Ray, B. M., Measuring the social position of the main streamed handicapped child, *Exceptional children*, 52, pp.57-62, 1985.
- [16] Guralnick, M. j., Groom, J. M., Peer interactions in main streamed and specialized classroom: A comparative analysis. *Exceptional children*, 54, pp.415-425, 1988.
- [17] B. R. So., *General Class Students' Acceptive Attitude for Development Retarded Children in Special Classes*, Ph.D dissertatio of Taegu Universtiy, pp.15-16, 2000.
- [18] S. G. Kang, H. J. Jo, *Disability understanding and education*, Seoul: Kyoyookbook 2003.
- [19] N. Y. Oh, J. H. Seol, Study on the Influences of Features and Satisfaction for Corporate Volunteers on the Factors of Attitude on the Disabled. *Disability & Employment*, 21(3), pp.153-184, 2011.
- [20] Esposito, B. G., & Peach, W. J., Changing attitudes of preschool children toward handicapped persons, *Exceptional Children*, 49(4), pp.361-363, 1983.
- [21] S. S. Kim, Effects of puppetry mediated intervention on non handicapped children's attitudes toward handicapped children. Ph.D dissertatio of Taegu Universtiy, 1998.
- [22] Y. J. Lee, A Study on the Attitude Changes of Volunteers toward the Disabled. a master's thesis of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2006.
- [23] King, R., Lloyd, C., Clune, A., and Allan, R., The experience of being a peer outreach volunteer : Benefits and challenges. *Australian e-Journal of the Advancement of Mental Health*, 8(1), pp.69-79, 2009.

- [24] S. H. Park, Korea reestablish relationships with disabilities special education and general education in inclusive education, Seoul: Kyoyookbook, 2003.
- [25] Fortini, M. E., Attitude and behavior toward students with handicaps by their non handicapped peers, Amerio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87, pp.78-84, 1987.
- [26] D. S. Lee, S. Y Kim, & J. H. Kim, etc, The Effects of Using 「A Disability Awareness Program for Teaching」 as a Curriculum Infusion Approach,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18(1), pp.25-46, 2011.
- [27] French. S, Simuluation exercises in disability awareness training: A critique. disability, Handicap & Society, 7(3), pp.257-266, 1992.
- [28] Schulz, J. B., & Carpenter, C. D., Mainstreaming exceptional students A guide of classroom teachers, Allyn and Bacon. 1995.
- [29] Gottlieb, J., Improving attitudes toward retarded children by using group discussion. Exceptional Children, 47, pp.106-111, 1980.
- [30] http://www.jejurehab.or.kr/Information_forest_together
- [31] Jonson, D. W., Jonson, R. T., Integrating handicapped students into the mainstream. Exceptional Children, 41, pp.90-98, 1980.
- [32] Y. H. Choi, H. S. Eom, The Effects of Watching TV Guidance for the Impovement of Handicap Awareness on General Children's Attuitudes of Accepting toward Handicapped Childre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44(1), pp.155-178, 2005.
- [33] H. S. Lee, Investigation on Attitudes of High school students toward Handicapped students : focused on the case of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ejong University, pp.24-25, 2008.
- [34] Y. H. Lim, The Study on Correlation between Objective and Subjective attitude toward Students with Disabilities of the Rural High School Students, a master's thesis of Taegu Universtiy, 2007.
- [35] S. J, Choi, General Attitude of Students in

Accepting Disabled Students in Integrated Classes of Middle Schools, a master's thesis of Taegu Universtiy, 2004.

김 성 진(Kim, Sung Jin)



- 2009년 2월 : 한신대학교 대학원 재활학과 (문학석사)
- 2012년 2월 : 한신대학교 대학원 재활학과 (문학박사)
- 2014년 4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마음나눔교육부 교수
- 관심분야 : 통계, 미분
- E-Mail : karma@kwu.ac.kr